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6回平昌郡議會

開會式

平昌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 2日(月) 午前11時 開式

第6回平昌郡議會(定期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 對한 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對한 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幹 事 金 昌 吉)

(11時 開式)

○ [redacted] 議席을 整理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第6回 平昌郡議會定期會 開會式을 舉行 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對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國旗를 向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對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 하시겠습니다.

錄音伴奏에 맞추어 1節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다음은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對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默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 [redacted] 平素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郡民의 福祉와 郡 發展을 爲하여 勞心焦思 하시는 金起烈 郡守님을 비롯한 室課所長 여러분!

그리고, 尊敬하는 同僚 議員 여러분!

本人은 먼저 第6回 平昌郡議會 定期會 開會式을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議會 開院後 最初의 定期會를 맞아 郡民께서 議會로 보내준 깊은 뜻과 郡民의 期待 또한 莫重함을 생각하며 무거운 責任感과 使命感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期待에 어긋남이 없이 議會를 運營하고자 하는 마음 걱정이 또한 앞서고 있습니다.

同僚 議員 여러분!

地方自治의 主役으로 役割을 다하고자 議員 宣誓를 하였던 開院式이 몇일전의 行事였던것 같으나 벌써 한해를 設計해야하는 定期會를 맞게 되어, 流水와 같은 歲月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實感이 납니다.

지난 4月 15日 풀뿌리 民主主義 産室이라는 基礎議會의 開院은 民主 歷史에 커다란 획과 發展을 가져 왔으나, 郡民의 마음속에는 憂慮半, 期待半 속에서 무거운 課題의 짐을 지고 出帆을 하였습니다.

그간, 基礎, 廣域議會에서의 運營과 機能의 施行錯誤는 議員의 基本意識 不足에서 온 非正常的인 議政活動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郡民의 憂慮의 목소리가 커졌던 一時的인 現狀도 있었던것이 숨김없는 事實입니다.

"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俗談과 같이 30年만에 復活된 地方自治를 놓고 생각해

볼때, 첫술가락에 不遇한 時期에 있었던 一連의 事例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또한 理解가 감직도 한 일입니다.

이제 몇술가락의 밥술을 들은 時點에서 漸次 地方議會의 나아갈 바른길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國民과 住民이 憂慮하는 마음이 漸次 否定보다는 肯定的인 側面으로 轉換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地方議會 制度및 議政活動 동 實質的인 많은 問題點이 남아 있으나, 漸次 纒수를 거듭하면서 制度的 矛盾과 運營의 矛盾을 改善함과 同時에 議員의 議政活動 過程에서의 反省을 바탕으로 漸次 改善을 한다면, 初選 議員의 使命感인 地方議會를 빠른 時日內에 定着 시키게 될 것이고 開院後 議政 活動時 郡民을 爲한 議政活動 이었는지, 郡民의 意思가 積極 反映된 議政 活動을 展開 하였는지, 郡民께서 議事堂으로 보내준 깊은 뜻을 暫時라도 忘却한 議政을 展開한것이 없었는지에 對한 깊은 自己 省察을 通하여, 잘못이 있었다면 빠른 矯正으로서 地方自治의 早期定着과 더불어 地域發展을 倍加 시키고 나아가 國家의 發展이 促進될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議員 여러분!

地方自治의 본디 참뜻은 一定 區域의 모든 일을 地域住民 스스로 다스린다는 簡單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地域의 發展 住民 福祉는 어려운 地方 與件으로 볼때에는 참으로 어려운 問題라고 생각되어 國家와 함께 發展되고 福祉를 追求하여야 한다는데는 그누구도 否定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國家와 함께 하는 것은 함께 努力하고, 함께 열심히 일하는 和合의 風土가 造成 되어야 할것입니다.

現在, 政府나 社會團體에서 汎國民 運動으로 展開되고 있는 " 일하는 風土造成"과 "30分 일 더하기"運動을 하게된 背景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國民의 和合을 와해시킨 利己主義가 主된 要因이 될것입니다.

利己主義의 澎湃로 나만이..,나혼자만이라고 하는 생각에 浪費,奢侈,享樂이 蔓延되었으며, 급기야는 世界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비춰보는 段階에 까지 왔다고 할수 있으며, 이제야 國民 各自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跳躍하기 爲하여 " 일하는 風土造成"과 "일 더하기 運動" 등이 展開되고 있는 現實 입니다.

惑者는 이런 狀況을 政府의 政策을 탓하는 傾向도 있으나,

누구를 탓하기 前 國民 各自의 利己心이 適用되었음을 깊이 自覺하고 同參 함으로써, 生動感 넘치는 地域社會, 밝은 地域

社會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今般 열리는 定期會는 議會 出帆後 最初의 定期會로서 平昌郡議會의 議政活動을 定着 시킴과 同時에 그간의 議政活動을 敎訓삼아 住民의 願하는 소리를 恒常 생각하고 함께 하는 議會運營으로 完全 定着시킬수 있는 機會라고 생각해볼때 더욱 重要한 會期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會期는 그간 1年間 推進 하여온 郡民을 爲한 各種 福祉와 地域發展 施策等을 點檢하고, 同時에 좋은 點은 獎勵하고 施行錯誤的인 事項이 있을때에는 反省을 함으로서 다음 年度의 發展을 期約하는 會期이며,

'92年度의 郡民에게 베풀어질 各種 살림 計劃을 點檢 確定하는 會期로서 議會의 役割이 그어느때보다도 重要한 會期로서 郡民과 地域發展을 爲한 施策이라면 郡民의 힘으로 積極 뒷받침하면서 반면, 이에 반한 事項이 있다면 郡民의 따가운 視線속에 果敢히 去勢하는 冷酷함도 보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議員께서는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今般 會期에는 法定 議案인, 行政事務監査 決算, 豫算案을 審議토록 되어 있는바 住民의 代表로서 住民께서 우리를 議會에

보내준 참 뜻을 생각할 때 深思熟考할 重要한 議題 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審議와 討議를 하여 주시고 때로는 妥協,讓步도 하시면서 能率的이고 生産的이며, 住民의 意思가 積極 反映되는 民主主義의 慣行을 定着시키는 會期가 되도록 議員 여러분들의 精誠이 遺憾 없이 發揮 되기를 祈願 합니다.

끝으로 開會式에 參席하여 주신 모든분의 健康과 幸運을 祈願 하면서 開會辭에 加류합니다.

感謝 합니다.

○ [redacted] 이것으로서 第6회 平昌郡議會 定期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案內 말씀 드리겠습니다.

1次 本會議가 午後 2時에 開議 됩니다.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感謝 합니다.

(11時18分 閉會)

○ 出席 議員

- 議 長 韓 榮 一
- 副 議 長 朱 泰 元
- 議 員 李 致 玉
- 議 員 李 相 蕪
- 議 員 朴 容 泰
- 議 員 金 樂 雲

議 員 郭 文 春

議 員 金 鍾 永

○ 出席 公務員

- 郡 守 金 起 烈
- 農村 指導 所長 林 東 鎬
- 企 劃 室 長 金 錫 奎
- 文化 公報 室長 權 赫 昇
- 內 務 課 長 金 榮 柱
- 새 마을 課 長 申 大 松
- 財 務 課 長 姜 慶 錫
- 社 會 課 長 申 勝 燁
- 家庭 福祉 課長 朴 靜 子
- 畜 産 課 長 鄭 義 秀
- 山 林 課 長 池 讚 周
- 民 防 衛 課 長 高 昶 植
- 保健 事業 課長 朴 鍾 秀

【 議 席 】

○ 議席表(5 面에 실음)

○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의거 署名捺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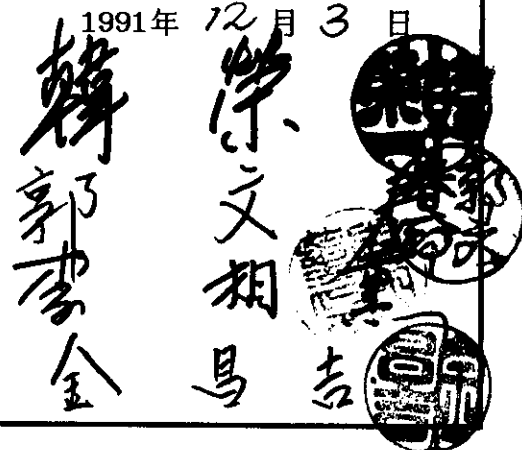
1991年 12月 3日

議 長 韓 榮 一

議 員 郭 文 春

議 員 金 鍾 永

幹 事 金 樂 雲



議 席 表

